

K-방역 생활용품, 성능평가길 열린다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(2021. 03. 09.)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「K-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」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.

-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,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, K-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 -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, 항균필름,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요에 대응하여 항바이러스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
 - 그러나, 항균시험과 달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.
 - 이에,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K-방역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.

- 이번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① 항바이러스 시험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② 시험평가 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여, ③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.
 - 우선, 다양한 제품군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바이러스 보관·배양시스템과 음압 클린룸을 포함한 필수 장비와 설비*를 구축한다.
- * 고성능 원심분리기(고농도 바이러스 농축), 전자현미경(바이러스 관찰), 유전자/단백질 검출장비(바이러스 검출), 유전체분석장비(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 모니터링) 등

 -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절차를 정립하고 한국인정기구(KOLAS)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체계를 마련한다.
 - 이를 위해, 올해 정부출연금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